

“위로 주고받으면 노년이 외롭지 않다”

글 유인종 편집부



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봉사자들은 매달 한 번씩 활동상황을 점검하면서 교육도 받는 간담회를 연다. 박종택 봉사자가 안부전화를 거는 모습(왼쪽부터).

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박종택 자원봉사자(66)는 1주일에 두 번, 또래 독거노인 4명에게 안부전화를 걸어 이야기 상대가 돼준다. 그 중 한 명인 A씨와 통화하며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. 고물을 수집하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지내는 A씨는 치아가 하나도 없고,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나쁘다고 조심스럽게 하소연했다. 박종택 봉사자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사정을 전했고, 복지관에서는 위기관리가정기금 중 일부를 지원해 틀니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.

A씨는 “사람이 그리웠는데 봉사자와 정기적으로 통화하며 외로움이 가셨다. 봉사자 덕에 틀니까지 생겨 앞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자신까지 생겼다”며 고마워했다.

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박종택 봉사자는 “나와 통화한 뒤 힘이 난다는 독거노인들의 말을 들으면 나이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낀다”며 뿌듯해했다.

아산재단은 2015년 취약계층에 특화된 복지사업을 펼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과 의료복지사업을 확대 개편했다. 그 중 독거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‘노노(老老)케어사업’을 기획했다. 노노케어사업은 건강한 노인 자원봉사자가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전화로 말벗이 돼주는 사업이다.

2015년에는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등 12개 기관을 선정해 봉사자 330여 명이 독거노인 1천여 명의 친구가 되었다. 각 기관은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봉사자들에게 통신비를 보조해 준다.

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25명의 봉사단이 100명의 독거노인을 상대하는 ‘사랑은 전화선을 타고’ 사업을 진행 중이다.

복지관의 강은지 과장은 “봉사자와 독거노인은 동년배여서 서로를 쉽게 이해한다. 이 사업이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이유다. 독거노인들이 복지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도 된다. 봉사자들 또한 무력감에서 벗어나 자존감이 높아진다”면서 “노인들에게는 건강이나 재력 못지않게 친구라는 정서적 관계가 중요하다. 노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노노케어사업이 아산재단의 도움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 🌟

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.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,200여 사회복지단체에 407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.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, 저소득계층의 자녀, 외국인근로자, 노숙인, 미혼모, 폭력피해여성, 새터민,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.